



8월의 기도

1. 이글거리는 태양이 꼭 필요한 곳에만 닿게 하시옵고 가끔씩 소나기로 찾아와 목마른 이들에게 감로수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더위 속에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상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3주기 추모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진정한 뜻을 이어받아 저희 모두가 모이면 기도와 흠이되면 전도하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참사랑이 계속 속의 소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소서.
3. 전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역이 열매 맺게 하소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4. 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분쟁을 속히 멈추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평화를 위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시고, 전쟁의 상처가 치유되며,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오주봉,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폭풍우를 이기는 믿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3:5)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 사도는 죄수로 몰려 재판장을 받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의 호송을 받으며 가고 있었는데 그가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출발한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 안의 모든 물건을 버릴 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 앞에서 담대히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25). 이것은 바울 사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말세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문이 있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요란스러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담대히 일어나서 외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피로 사신 우리를 결코 놓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폭풍우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ugust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2004년 해외성회

< 일본 성회 >



① 오카와 목사가 시무하는 야마토 갈보리체플교회 예배 전경(이원 생중계)
② 말씀을 전하는 조용기 목사와 통역에 나선 시가끼시게마사 목사
③ 조용기 목사를 환영하는 오카와 츠구미치 목사

일본 일천만구령운동은 1978년 8월 동경 히비야 공원 공회당에서 개최된 부흥집회를 시작으로 교토·오사카·나고야·요코하마 등 일본 주요 도시에서 부흥성회를 인도하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조용기 목사는 성회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목회자 양성을 목적으로 현지인 리더십 세미나도 수차례 가지며 현지인 사역자 양성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2004년 7월 조용기 목사 초청 '동경 프로테스탄트교회 성회'를 회고해 보고자 한다.

DCEM이 주관하고 동경 프로테스탄트교회(담임 오카와 츠구미치 목사)가 주최한 본 성회는 동 교회를 비롯해 갈보리체플교회, 순복음동경교회와 인근 지역 교회성도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오카와 츠구미치 목사의 초청으로 열린 본 성회는 일

본 단일 교회로는 유일하게 급속한 교회성장을 거듭하며 일본 내 성령 운동의 기수로 거듭난 갈보리체플교회의 지성전 건립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성회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의 통역으로 진행됐다. 조용기 목사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요, 손으로도 만질 수 없는 분이지만 기도로 일궈낸 과거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의 일을 대신 이루신 좋으신 분이요, 우리의 일을 대신 이루신 좋으신 분이요, 우리의 일을 대신 이루신 좋으신 분이요, 우리의 일을 대신 이루신 좋으신 분이요"고 말했다. 또한 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켰다. 설교 후 조용기 목사는 일본 지역 복음화

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했다.

조용기 목사 초청 '동경 프로테스탄트교회 성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리고 협력이 두드러졌다. 800명 밖에 수용할 수 없는 교회는 일찌감치 순복음동경교회의 협조 속에 생방송 시스템을 준비하여 성도들을 순복음동경교회를 비롯 갈보리체플교회로 분산 수용하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회에 참석한 일본인들은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는 이해하기 쉽다"며 "어렵고 힘든 매일수록 더욱 기도에 매진할 것"이라고 다짐하기도 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누구든지 고난을 당하면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남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닥쳐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궁극적인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시 121:2)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수 있을까요?

1.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시 127:1)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큰소리 치지만 실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별레 한 마리도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중략)...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야훼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8절)

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모세가 기도하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요사이 우리에게는 왜 그런 기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적이 있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도 우리가 안 믿는 것이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제물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 건지거나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알고 주님께서 그를 고난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믿다가 말면 안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자마자 응답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고 난 다음 오래 기다리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다가 25년을 기다려서 100살이 되었을 때,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믿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옆드려서 기도만 하지 말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바라보고 응답 받은 꿈을 마음속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마음속에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은 것을 꿈꾸면서 기도했고 그 결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빛으로 여러분 마음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당할 때 함께 계시는 것을 그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몰라도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생의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요 축복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뒷배로 삼으면 형언할 수 없이 위대한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의 늪에 빠졌으면 병을 털고 일어나십시오. 고통과 괴로움과 낭패와 실망과 좌절에 넘어졌으면 믿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부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4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하니 일어나...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2:13,14)



고 이주일이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밥 많이 먹고 지쳐가지고 꾸는 꿈은 자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기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아침에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개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잊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나간 후에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다시 한 번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곳에 피해있으라” (13절)고 지시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또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깨어나서도 잊히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요셉은 급히 서둘러 그 밤에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헤롯이 많은 아이들을 죽이도록 내버려두었을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를 박살내버리면 좋겠는데, 왜 헤롯을 가만두고 오히려 예수님을 피난시켰는가?’ 그러나 이런 생각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절대주권자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왜 이랬습니까? 왜 저랬습니까?’ 하고 감히 질문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선하다고 생각하시는데로 결정해서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따라갈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15)

무사히 애굽 땅에 이른 요셉은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물들을 팔아서 집을 얻고 가족들을 돌보며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일가가 애굽에서 한동안 살았던 표면적 이유는 헤롯의 유아살해명령으로부터 아기 예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이 일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호11:1)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출애굽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사렛으로 올라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예언이 여러 사건을 내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가 이 예언을 인용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전파를 하고자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